

교육 지도자들이 지각하는 스포츠 가치 지향

김승곤¹⁾ · 이세형²⁾ · 양명환³⁾

- 목 차 -

ABSTRACT

- | | |
|----------------------|----------------------------|
| I. 서론 | 2. 지도자 유형별 가치 인지도 |
| II. 연구방법 | 3. 연령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
| 1. 연구대상 | 4. 체육 관련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
| 2. 측정도구 | 5. 일반 교사들이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
| 3. 자료처리 | IV. 논의 |
| III. 결과 및 해석 | 참고문헌 |
| 1.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 |

Value Orientations of Sport as Perceived by Educational Leaders

Kim, Seong-Gon · Lee, Sae-Hyung · Yang, Myung-Whan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urvey research was to examine the value orientations as perceiv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 coaches, community sport leaders and other academic teachers. Specifically, the research problems were twofold, First, to investigate whether differences on selected sport values were significantly related to gender, age, and educational leaders. Second, to investigate what social values emphasized by physical education teachers & coaches, community sport leaders and other academic teachers during educational training.

Subjects were 229 educational leaders(152 male and 77 female leaders) selected from the 4 high schools, a community sport club and '97 community sport leaders training course in Cheju National University. Data for the study were collected by means of 10 items questionnaire and focus group interview. A 5-point Likert scale, strongly disagree(1)~strongly agree(5), was used to measure the value orientation of sport.

1)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2)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교수
 3) 제주대학교 체육학과 시간강사

Frequency analysis, t-test, one-way ANOVA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ale leaders rated significantly higher patriotism score than did female leaders, while female lead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cultivation of leadership score than did male leaders.

Second, Sport related leaders perceived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social development, good citizenship, respect for authority, self-discipline, leadership, prevention of social deviation, composite value scores than did the other academic teachers.

Third, twenties lead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social development, respect for authority, leadership scores than did thirties leaders and above forties leaders. Also, twenties leaders rated significantly higher competition in good faith and cooperation, self-discipline scores than did above forties leaders.

Fourth, sport related leaders emphasized attitudes of do one's best, honesty and sincerity, perseverance, spirit of fair play, self-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consideration for others, the rules of etiquette, mental health, positivity, and physical health. Academic teachers stressed attitudes of honesty and sincerity, self-regulation and responsibility, do one's best, consideration for others, positivity.

1. 서론

현대사회에서 스포츠는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고 전달해 주는 정형화된 사회제도로 등장하였다. 가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가를 평가하는 사회적 기준이 되는 한편, 구체적인 행위 상황에서 일어나는 규범적 기대속에 반영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와 구체적 규범은 모두 가정, 학교, 종교, 스포츠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제도안에서의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개인에게 전달된다(박홍규, 정홍익, 임현진, 1994).

학교 교육을 정당화하는 혼란 논거는 학생들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배우게 된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학생들은 단순히 특정의 경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라고 하는 경기를 배우게 된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에서 스포츠는 일반적으로 보다 큰 사회의 축소판 내지는 거울로서 간주된다. 이는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가 사회적 상징, 신념, 규범, 가치, 태도 및 인지적 경험 등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내면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스포츠는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관을 전달하는 하나의 사회제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제, 워털루 전투의 승리가 이튼 경기장에서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단순히 풍자가 아닌 사실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논거 때문에 스포츠가 사회의 가치체계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여러 방법들이 관심이 대상이 되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대한 논제는 일찍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이론적 또는 방법론적인 여러 문제로 인하여 경험적 연구의 증거가 빈약한 실정이다. 다만 스포츠 참가는 특정 계층, 즉 낮은 계층의 청소년이 계층이동의 상승 수단으로서 스포츠에 참가한다는 사실과 스포츠 활동을 경험함으로써 학습되는 인격형성, 선의의 경쟁, 도덕적 발달의 충족, 시민정신과 같은 바람직한 영향과 결과에 대한 사변적 증거가 제시되고 있을 뿐 아직까지 명료하게 경험적으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임변장, 1986).

스포츠에 관련된 가치를 분석하는 일 방법은 체육인들의 의견을 분석하는 것이다. Snyder (1972)는 미국 오하이오 주에 있는 270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농구코치들이 선수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슬로건을 분석한 결과, 다섯 가지 종류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첫째는 육체적, 정신적 건강이었고, 둘째는 기본기의 중요성으로서 기본기는 쉽게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노력과 시간을 통해서 습득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셋째는 적극적인 정신자세와 경쟁심이었고, 넷째는 엄격한 훈련자세, 다섯째는 전체의 승리를 위해서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었다(박홍규, 정홍익, 임현진, 1994).

유사한 방법으로 Edward(1973)는 신문, 방송, 잡지의 스포츠 관련 기사를 수집하고 내용 분석을 통하여 소위 "미국 스포츠 신조"를 만들어내었다. 그는 미국 스포츠의 신조를 구성하는 주요 가치를 성격형성, 규율, 경쟁,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신앙심, 애국심 함양으로 지적하였다.

Snyder와 Spreitzer(1989)는 지도자들의 슬로건, 스포츠 연구잡지, 신문의 스포츠 기사 및 매체의 홍보물 등에서 강조하고 있는 스포츠 가치로는 고행, 규율, 성격, 경쟁과 승리로 대별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의 가치를 분석한 연구들도 있다. Spreitzer와 Snyder(1975)는 미국 대도시에 거주하는 5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에 대한 시민들의 가치 지향을 조사 연구하였다. 표집의 90% 이상의 사람들이 스포츠는 '자기수양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때문에 가치있다고 응답하였고, 80%의 응답자가 스포츠는 '공명정대한 정신을 함양시켜주기 때문에' 가치있다고 대답하였다. 또한 스포츠가 '권위에 대한 존경심', '훌륭한 시민정신을 배울 수 있도록 해준다'는 가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약 70%가 동의하였다.

김성찬, 이창준, 양명환(1995)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1561명의 중·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스포츠 가치 지향을 조사한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약 90%의 응답자들이 '스포츠를 통해서 건강과 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동의하였고, 남학생이 80%, 여학생의 75%가 '스포츠가 건전한 시민을 양성시켜주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남학생이 약 80%, 여학생이 71%가 스포츠는 '우리사회의 발전에 중요한 기능을 담당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으며, 78%의 남학생과 70%의 여학생이 '스포츠를 통하여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고 응답하였다. 남녀 학생간의 성차는 10개의 종속변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남학생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 점수가 여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스포츠가 개인과 사회 모두에게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합의가 존재하는 것 처럼 보이지만 스포츠 참여가 바람직한 성격 또는 인성발달, 도덕성 발달 및 사회적 가치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경험적 증거들이 희박하다(김성찬, 이창준, 양명환, 1995).

스포츠에의 참여가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한다는 것과는 달리 규칙위반, 승리에 대한 지나친 집착, 폭력, 도구주의, 부적절한 경쟁심, 학업 성취력 저해 등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증거들도 제기되고 있다(Kleiber & Roberts, 1981; McPerson, 1987; Tutko & Burns, 1979). 스포츠로 하나의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고, 다양한 성격을 형성한다. 승리광의 증상, 파괴적인 프로모형, 아동들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의 논제는 세속화된 스포츠가 보여주는 역기능적인 측면들의 예이다.

이처럼 스포츠의 가치 사회화에 대한 연구가 모순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한편에서는 세속화된 업적주의와 경쟁만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평등주의와 공명정대한 정

신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사회의 지배적인 가치체계간의 상호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이것은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의 경험이 참여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결과가 다양하고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선수들에게 지배적인 사회가치 체계를 전달하는 사회화 주관자인 교육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가치는 어떠한 지향성을 보이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고등학교 체육교사 및 코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지도자들 그리고 일반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대상으로 스포츠의 가치 지향, 교육 및 훈육시 강조하는 가치들을 계량적인 연구방법과 질적인 연구방법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체육 관련 지도자와 일반 교과목 교사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는 어떠한가? 둘째, 성별과 연령에 따른 스포츠 태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체육관련 교사들과 일반 교과목 교사들이 교육이나 훈육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조사연구는 제주도내에 있는 고등학교 체육교사, 코치 및 일반 교과목 담당교사, 그리고 1997년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를 받는 생활체육지도자(10개 종목) 23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집은 고등학교의 교사들은 제주시내와 서귀포시의 2개교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이루어졌으며, 생활체육지도자는 제주대학교 자연과학대학 부설 생활체육지도자연수원에서 실시하는 1997년도 제 2차 3급 생활체육지도자 연수를 받는 사람들과 제주시내의 에어로빅 교습소에서 근무하는 지도자들을 유목적적 방식으로 표집하였다. 대상자의 표집 특성을 보면, 남성이 152명으로 66.4%, 여성이 77명으로 33.6%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대가 78명으로 34.1%, 30대가 93명으로 40.6%, 40대 이상이 58명으로 25.3%로 나타났다. 지도자별로는 일반교사가 106명으로 46.3%, 체육 관련 지도자가 123명으로 53.7%를 차지하였다.

2. 측정도구

스포츠 가치 조사지는 3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부분은 폐쇄형 질문으로 스포츠 가치 지향을 묻는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 가치는 Spreitzer와 Snyder(1975)의 스포츠 가치지향 질문 문항을 한국어 판으로 번역하고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여 신뢰도와 타당도 검증 입증한 김성찬, 이창준, 양명환(1995)의 스포츠 가치 문항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스포츠 가치 질문은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적에서 반대(1)에서 전적으로 찬성(5)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개별문항과 전체문항을 합성한 전체가치에 대하여 분석이 개별적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부분은 첫째 부분의 폐쇄형 척도에서 응답한 내용 이외에 일선 교육현장에서 지도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들을 파악하고, 추후 스포츠 가치 척도 제작이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표적집단 면접(focus group interview)과 개방형 질문이 주어졌다. 체육교사와 코치인 경우에는 "선생님이 선수들을 가르치거나 훈련을 시킬 때 강조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였고, 생활체육지도자들에게는 한 번에 5명 정도씩 면접을 실시하여 체육교사와 유사한 질문을 주어 연구자가 직접 응답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거나 응답자 자신이 응답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일반 교사들에게는 “선생님이 학생들을 교육하거나 훈육을 할 때 어떠한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십니까?” 라는 형식으로 구조화된 질문이 주어졌다. 따라서 일반교사와 체육교사 및 코치인 경우는 자유기술 형식에 의하여 자료가 얻어졌고, 생활체육지도자는 집단 면접 형식을 취하여 자료가 얻어졌다.

세 번째 부분은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지도자 유형)과 스포츠의 행동적 참여 정도를 묻는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스포츠 참여 정도 측정은 지난 3개월 동안의 스포츠 참여 빈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7단계 빈도 척도로 파악하였다. 질문지는 체육교사 및 코치용 질문지, 일반교사용 질문지, 생활체육지도자용 질문지로 구분하여 제작되었다.

3. 자료처리

회수된 질문지와 면담 기록지는 응답 내용이나 불성실한 자료 및 코딩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선별과정을 거친 결과 일반교사 1명의 자료를 제외하고 최종 229명의 자료가 자료분석에 이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개별 입력하여 분석목적에 따라서 빈도분석, t검증 및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면접자료와 개방형 질문의 자료는 내용 분석을 통하여 유사한 항목을 특정차원으로 분류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표-1은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1에서 보는 바와같이 애국심 고취와 리더십 개발의 개별 변인에서만 남녀간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을 뿐 나머

표-1.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종속변인	성별		t(d.f=227))	P
	남성(n=152)	여성(n=77)		
사회발전	4.09 (.68)	4.11 (.83)	-.31	.760
건전한 시민양성	4.16 (.66)	4.17 (.68)	-.12	.907
선의경쟁과 협동심	4.03 (.69)	4.06 (.69)	-.33	.742
권위에 대한 존경심	3.16 (.88)	3.40 (.98)	-1.86	.064
애국심 고취	4.20 (.66)	3.84 (.83)	3.50	.001
사회적 이동	3.13 (.91)	3.30 (1.00)	-1.32	.188
공명정대한 태도	3.89 (.77)	3.99 (.73)	-.93	.352
자기수양	4.13 (.67)	4.21 (.66)	-.89	.377
리더십 개발	3.70 (.74)	4.04 (.80)	-3.13	.002
사회적 일탈 예방	3.86 (.80)	3.74 (.88)	.99	.322
전체 합성가치	38.34 (4.30)	38.87 (5.56)	-.80	.423

지 변인들에서는 성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못하였다. 구체적으로 해석하여 보면, 애국심 고취의 가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리더십 개발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최근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성찬 등(1995)의 연구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성찬 등(1995)의 연구에서는 측정된 모든 변인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들보다 긍정적인 평가를 한데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남녀 지도자들의 성차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오히려 건전한 시민 양성, 권위에 대한 존경, 리더십 개발 및 자기수양의 가치에 대해서는 남성 지도자들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지도자 유형별 스포츠 가치 인지도

지도자 유형은 체육교사, 코치 및 생활체육지도자를 한 집단으로, 일반교사를 나머지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표-2는 지도자 유형별로 스포츠 가치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를 분석한 결과이다. 사회발전, 건전한 시민양성, 권위에 대한 존경심, 자기수양, 리더십 개발, 사회적 일탈예방, 전체 합성 가치 변인에서 지도자 유형별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러한 모든 변인에서 체육관련 지도자들이 일반교사 집단보다 높은 점수를 얻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애국심 고취, 사회적 이동, 공명정대한 태도의 변인에서는 지도자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것은 체육관련 지도자들이 스포츠를 통한 사회화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며, 스포츠 부문이 다른 분야보다 보수적인 성향을 띄며 스포츠 세계에서 지도자들은 질서 모형에 강하게 집착한다는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표-2. 지도자 유형별 스포츠 가치 인지도

종속변인	지도자 유형		t(d.f=227))	P
	체육지도자(n=123)	일반교사(n=106)		
사회발전	4.40 (.65)	3.75 (.66)	7.52	.000
건전한 시민양성	4.25 (.66)	4.06 (.66)	2.23	.026
선의경쟁과 협동심	4.11 (.71)	3.97 (.67)	1.46	.145
권위에 대한 존경심	3.42 (.93)	3.03 (.86)	3.23	.001
애국심 고취	4.13 (.78)	4.01 (.69)	1.14	.257
사회적 이동	3.23 (.97)	3.13 (.92)	.76	.445
공명정대한 태도	3.97 (.77)	3.87 (.74)	.97	.322
자기수양	4.34 (.64)	3.93 (.64)	4.82	.000
리더십 개발	4.02 (.77)	3.58 (.72)	4.53	.000
사회적 일탈 예방	3.93 (.82)	3.69 (.82)	2.19	.030
전체 합성가치	39.79 (4.75)	37.03 (4.34)	4.58	.000

3. 연령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

표-3은 연령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를 분산분석한 결과이다.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배양, 권위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리더십 개발, 전체 합성가치 변인에서 연령에 따른 지각정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인 집단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Scheffé 방

식의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사회발전, 권위에 대한 존경, 리더십 개발, 전체 합성가치에서는 20대의 지도자들이 30대와 40대 이상의 지도자들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배양 및 자기수양 변인에서는 20대와 30대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고, 20대와 40대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대의 지도자가 40대이상의 지도자보다 선의의 경쟁심과 협동심 배양 및 자기 수양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현대에 들어서 젊은 사람들의 가치 질서가 무너지고 다원화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본다면, 매우 고무적인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나 인지적인 차원에서의 분석이기 때문에 스포츠 태도에 대한 결정적인 진술을 하기 위해서는 행동적 차원에서의 평가가 아울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표-3. 연령별 스포츠 가치 인지도

종속변인	연령별			F (D.F 2,226)	P	Scheffé Test
	20대(n=78)	30대(n=93)	≤40대 (n=58)			
사회적 발전	4.31 (.69)	4.03 (.75)	3.91 (.68)	5.64	.0004	20>30, 40대
건전한 시민양성	4.28 (.60)	4.15 (.69)	4.02 (.69)	2.69	.0968	
선의경쟁과 협동	4.19 (.62)	4.02 (.74)	3.88 (.68)	3.55	.0304	20대>40대
권위에 대한 존경	3.59 (.86)	3.04 (.88)	3.10 (.93)	9.03	.0002	20>30, 40대
애국심 고취	3.92 (.86)	4.15 (.69)	4.17 (.59)	2.67	.0713	
사회적 이동	3.33 (.94)	3.04 (.93)	3.21 (.95)	2.06	.1301	
공명정대한 태도	4.04 (.71)	3.88 (.82)	3.83 (.70)	1.51	.2224	
자기수양	4.32 (.67)	4.06 (.66)	4.07 (.65)	3.82	.0233	20대>30대
리더십 개발	4.14 (.72)	3.67 (.79)	3.62 (.69)	11.25	.0000	20>30, 40대
사회적 일탈 예방	3.85 (.85)	3.82 (.82)	3.77 (.82)	.12	.8879	
전체 합성가치	39.97 (4.73)	37.87 (4.79)	37.59 (4.33)	5.87	.0033	20>30, 40대

4. 체육 관련 지도자들이 교육 및 훈련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체육교사, 코치 및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학생, 선수 및 교습생들을 지도할 때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들을 지적하도록 한 결과, 132개의 개별 응답을 하였고, 이를 다시 10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요약한 결과가 표-4이다. 표-4에서 보면, "최선을 다한다(노력)"는 차원이 전체 응답 비율의 22.7%를 나타내어 일반적으로 체육관련 지도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가치인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은 "정직과 성실성" 차원으로서 전체 응답비율의 13.6%를 나타내었다. 이 차원에 속한 관련 진술문들의 예를 보면, 말은바 일에 충실하고 거짓이 없어야한다, 성실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운동인으로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자 등이다. "인내심"과 "페어플레이 정신"은 공히 11.3%, "자율과 책임감" 차원은 8.3%, "타인배려"(공동체 정신)와 "예의범절" 차원은 공히 7.6%, "정신건강"과 "적극성" 차원은 공히 6.8%, "육체적 건강" 차원은 3.8%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표-4. 생활체육지도자와 체육교사들이 교육 및 훈련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들

사회적 가치 차원	빈도(%)	관련 진술문
최선을 다한다(노력)	30(22.73)	최선을 다하자,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 최선을 다하는 정신, 무조건 열심히 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항상 노력하는 사람, 최선을 다하여 매사에 행동함, 정신을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
정직과 성실성	18(13.64)	말은바 일에 충실하고 거짓없는 사람, 거짓없이 행동하라. 도덕성과 바른 정신,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 성실성, 성실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태도, 성실한 자세로 꾸준한 실력 향상, 운동인으로서 모든 일에 모범을 보이자, 진실한 사람.
인내심	15(11.36)	인내와 끈기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인내심, 강한 정신력, 인내심과 지구력을 통한 자기완성. 기초부터 천천히, 끈기 있는 자세, 어려운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착실한 노력하기.
페어플레이 정신	15(11.36)	규칙준수, 정정당당히 겨룬다. 겸손한 자세, 철저한 규칙엄수, 비굴한 패자가 되지 말자. 스포츠맨십에 의한 공명정대한 플레이, 선의의 경쟁, 인성과 스포츠 정신 겸비.
자율과 책임감	11(8.33)	스스로 일어서라, 자기가 한일에 대하여 책임을 져라, 자기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라. 자신의 잘못을 남의 탓으로 돌리지 말라, 책임 있는 사람, 자발적 행동,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타인의 배려(공동체 정신)	10(7.58)	친구에게 마음을 여는 사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태도, 공동체 의식, 협동심과 양보,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타인을 생각하는 것, 협력하는 자세, 인격존중, 친목도모.
예의범절	10(7.58)	예의범절, 운동매너, 윗사람에게 예의바른 행동, 예의바른 행동, 최우선이 사람 됨됨이, 공중도덕 강조,
정신적 건강(수양)	9(6.82)	스트레스 해소, 자기만족, 정신수양, 정신적 가치, 건전한 생활가치, 정신조절, 건전한 사고, 계획성 있는 삶.
적극성(자신감)	9(6.82)	적극적이고 자신감 있는 사람, 필승의 신념, 적극적인 자세,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라, 자신이 하는 일에 자부심을 가져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불굴의 정신.
육체적 건강	5(3.78)	육체적 건강, 건전한 육체에서 건전한 정신이 깃들인다. 건강의 중요성, 자신의 신체관리
전체(10가치)	132(100.00)	

* 복수 응답이 있으므로 체육관련 지도자들의 표집 사례수와 일치하지 않음.

5. 일반교사들이 교육 및 훈육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

일반교사들이 인성교육이나 훈육시 강조하는 가치들로 응답한 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한 것이 표-5이다. 표-5에서 보면, "정직성" 차원으로 분류된 사회적 가치가 전체 응답자의 30.4%를 차지하여 일반 교사들이 가장 강조하는 일반적인 가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된 진술문들의 예로는 '거짓없는 순수한 삶', '바른 생각을 가질 것', '정직과 신뢰성' 등이다.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사회적 가치는 "자율과 책임"(21.4%)이었으며, "최선을 다한다"의 차원은 17.86%를 차지하였고, "타인배려"(공동체 의식) 차원은 8.9%를 나타내었다. "적극성" 차원은 5.4%로 가장 낮은 응답 비율을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위의 가치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최선의 것으로 구체화된 윤리적 강령으로 정의되는 스포츠맨십(sportsmanship)과 페어플레이(fairplay) 정신 속에 담겨있는 기본 가치들로서 일반 사회의 도덕이나 윤리와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스포츠맨십, 페어플레이 정신은 스포츠 참여를 통해서 터득할 수 있는 가치 및 태도로서 생각되며, 인격형성의 중요한 요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표-5. 일반교사들의 교육 및 훈육시 강조하는 사회적 가치들

사회적 가치 차원	빈도(%)	관련 진술문
정직성	17(30.36)	정직, 거짓없는 순수한 삶, 정직한 생활, 바른 생각을 가질 것, 정직과 신뢰성, 성실한 태도.
자율과 책임	12(21.43)	자율정신, 책임과 권리, 자신의 본분을 지키자, 맡은바 책임을 다하는 사람, 자신의 가치관 정립, 자기 책임의식, 자연스런 생활을 통한 민주시민, 감정을 억제하고 합리적 판단을 하자.
최선을 다한다(노력)	10(17.86)	최선을 다하는 것,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자세, 조그만 더, 노력, 맡은바 최선을 다한다, 미래를 준비하는 자세로 살아간다.
예의범절	9(16.07)	예절, 효도, 겸손, 인사하기.
타인배려(공동체 의식)	5(8.93)	남에게 해를 주지 말자, 타인에 대한 배려, 공동체의식, 인간성, 사랑.
적극성(자신감)	3(5.35)	자존심을 가져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자긍심.
전체(6가치)	56(100.00)	

* 무응답 n=50

I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다원화된 현대 사회의 가치를 전체 사회 구성원들에게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정형화된 사회제도인 스포츠 활동을 교육지도자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성별, 연령

별, 지도자 유형별로 분석하고, 부가적으로 교육자들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가치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학생들에게 강조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려는 것이다.

우선 배경 변인별로 스포츠 태도 인지도를 분석하기 전에 참고 자료로서 유사한 척도를 사용하여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를 분석한 두 편의 선행 자료와 본 연구에서 얻어낸 자료를 성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분석한 결과가 표-6이며, 찬성하는 데 응답한 비율을 기준으로 3편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였다. 응답 척도들은 Spreitzer와 Snyder(1975)의 논문에서는 반대, 중립, 찬성의 3점 척도로 되어있고, 김성찬, 이창준, 양명환(1995)의 자료와 본 자료는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있다.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김성찬 등(1995)의 논문과 본 자료를 3점 척도로 변형하였다. 즉, 전적으로 반대와 반대하는 편을 더하여 "반대", 찬성과 전적으로 찬성을 합하여 "찬성" 잘 모르겠다는 "중립"으로 변형하였다. 그리고 3편의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8항목에 대해서만 비교 분석하였다.

표-6. 스포츠 가치 인식에 대한 비교(찬성 비율)

사회적 가치	Spreitzer & Snyder (1975): 일반시민 500		김성찬 등(1995): 청소년, 대학생 1561명		본 연구 자료(1997): 교육 지도자 230명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사회발전	20	16	79	71	84	79
건전한 시민양성	67	75	80	75	86	90
선의 경쟁과 협동	-	-	76	69	86	84
권위에 대한 존경	69	75	47	28	36	49
애국심	34	49	58	53	90	70
사회적 이동	46	45	34	23	38	49
공명정대한 태도	79	82	63	54	74	81
자기수양	90	88	74	62	84	90
리더십 개발	-	-	54	44	64	78
사회적 일탈 예방	64	74	-	-	75	69
건강과 체력향상	-	-	90	88	-	-
경쟁에 따른 손실	10	19	-	-	-	-

* -표시는 질문 항목이 없음을 나타냄.

표-6에서 보는바와 같이 3편의 논문에서의 자료는 매우 유사한 사회적 가치 항목들을 가지고 측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6에서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보인 가치 항목을 살펴보면, 미국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Spreitzer와 Snyder(1975)연구에서는 자기수양의 가치를 남녀 모두 90% 정도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성찬 등(1995)의 연구에서는 건강과 체력 향상의 가치를 남녀 모두 90% 정도의 응답자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자료에서는 남성의 90%가 애국심을 함양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의 가치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여성의 90%는 건전한 시민양성과 자기수양을 스포츠의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있다.

스포츠가 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은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Spreitzer와

Snyder(1975)보다 제주도 청소년과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자의 두편의 자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건전한 시민양성의 가치도 Spreitzer와 Snyder(1975)의 자료보다 제주도 청소년과 교육자들을 대상으로 한 두 편의 자료에서 더욱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권위에 대한 존경은 Spreitzer와 Snyder(1975)의 자료가 다른 두편의 자료에서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애국심은 미국인들보다 제주도 청소년과 교육자들, 특히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한 본 자료에서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스포츠를 통한 사회적 계층 이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3편의 자료가 모두 유사한 비율로 낮게 나타났다. 공명정대한 태도 함양의 기능에 대해서는 Spreitzer와 Snyder(1975)의 자료와 본 자료는 유사한 비율을 나타내었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김성찬 등(1995)자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기수양의 기능에 대한 찬성 비율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Spreitzer와 Snyder(1975)의 자료와 현 자료가 동일한 양상으로 보였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료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두 편의 연구와 미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자료의 비교는 피험자들의 대표성의 문제, 연구된 시간간의 간격이 길고 동일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정적인 자료로서 인정하기는 어렵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일반화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그러나 스포츠에 대한 태도를 유사한 척도를 사용하여 두 나라의 일반적인 경향성을 파악한 비교 자료로서의 가치는 있다고 사료된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스포츠는 젊은이들에게 건전한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스포츠를 통하여 애국심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가치는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욱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한국 모두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다 자기수양의 기능, 공명정대한 태도 함양의 기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스포츠를 통하여 사회적 계층이동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 대해서는 3편의 자료에서 모두 찬성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스포츠 기량을 통해서 일시적인 인기나 명성을 얻음으로써 극히 일부 선수가 수직적인 사회계층 이동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스포츠에서의 탁월성만 자체만으로는 사회적 이동을 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스포츠가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제주도 청소년과 교육자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부분적인 원인이긴 하지만 우리 나라의 청소년과 지도자들이 스포츠의 사회발전에의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배경에는 그 동안 '86년 아시안 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 등 국제적인 스포츠 경연을 개최하면서 스포츠를 통하여 국익과 사회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었다는 점을 인정한 바에 기인한 결과가 아닌가 사료된다.

성별에 따른 스포츠 가치 인지도에서 특기할만한 사항은 특히 여성 지도자들이 건전한 시민양성, 권위에 대한 존경, 리더십 개발 및 자기수양의 가치에 대해서는 남성 지도자들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대에 들어서 여성들의 스포츠의 참여 확대 및 생활체육 및 일선 체육지도자로서의 진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볼 때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한 것으로 평가되며,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지도자로서의 태도를 갖추고 있다는 점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연령에 따라서 스포츠의 기능을 평가한 결과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사회발전, 선의의 경쟁과 협동심 배양, 권위에 대한 존경, 자기수양, 리더십 개발, 전체 합성가치 변인에서는 20대의 젊은 지도자들이 40대 이상의 중년 지도자들보다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이 결과는 현대에 들어서 우리사회가 상대적으로 도덕적, 정신적 가치의 하락이 우려되고 있고, 사회병리현상 및 가치관 혼란시대에 접하면서 젊은이들이 몰 개성화하고 병리적인

가치만을 학습하고 있다는 우려의 시각에서 볼 때, 매우 긍정적인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지도자는 사회적 가치를 전파하는 사회화 주관자로서의 의무와 권리가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현실점에서 젊은 지도자들의 스포츠의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매우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교육 지도자들이 일선 현장에서 학생들을 선도하고 교육할 때 강조하는 공통적인 가치로는 최선을 다하는 노력의 중요성, 자율과 책임, 정직함과 성실함, 타인을 배려하는 공동체 의식, 예의를 갖춘 사람, 적극적인 사고를 지닐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능력보다는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를 강조하고, 훌륭한 도덕성과 정직을 최대의 가치로 간주하는 스포츠맨십, 개인적인 책임과 함께 사회적 책임으로 강조되는 팀워크, 성공 실패에 대한 정당한 시각을 강조하는 스포츠의 하위문화의 가치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보통 스포츠라는 하위문화를 사회적 가치 저장소라 생각하지만 스포츠 내에서는 결국 대중사회로 다시 흘러 들어갈 가치와 규범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지도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스포츠에서 터득한 가치는 사회적 가치로 창출되기 때문에 교육지도자들이 학생들에게 진정한 가치와 신념체계를 심어주었을 때 "워털루 전투의 승리가 이튼 경기장에서", "영국의 민주주의는 이튼 운동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주장들이 단순히 풍자가 아닌 진정한 사실로서 인식될 것이다.

연구 방법론적인 일 제언으로서 추후에는 본 연구에서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를 면접을 통하여 분석한 것과 같이 현장에 보다 접근하여 우리의 경험적 세계를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보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스포츠 과학에서는 계량적인 방법에 맹목적으로 의존하여 측정의 정확성과 신뢰도에만 치중한 나머지 외적 타당도의 문제, 몇 개의 변인들을 선정하여 복잡한 인간행동을 파악하려는 시도, 경험적 세계를 조사자가 사용하는 모형에 맞도록 왜곡하는 경향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현장 속에서 문제를 발견하고 직접적인 관찰과 경험을 축적하여 총체적 설명과 귀납적 해석을 요구하는 질적인 접근 방법을 통하여 한국인들의 스포츠 가치체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운동 참여자 및 지도자들의 스포츠에 대한 태도나 행동을 포괄적이고 직접적으로 기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의 측정과 내용 분석을 통하여 얻어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국심 고취의 가치는 남성이 여성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리더십 개발은 여성이 남성보다 가치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둘째, 체육지도자들이 일반 교과목 지도자들보다 사회발전, 건전한 시민양성, 권위에 대한 존경심, 자기수양, 리더십 개발, 사회적 일탈예방, 전체 합성 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셋째, 20대의 지도자들이 30대와 40대 이상의 지도자들보다 사회발전, 권위에 대한 존경, 리더십 개발, 전체 합성가치에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얻고 있으며, 20대의 지도자가 40대 이상의 지도자보다 선의의 경쟁심과 협동심 배양 및 자기 수양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

넷째, 체육관련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가치들은 "최선을 다한다(노력)" "정직과 성실성" "인내심", "페어플레이 정신", "자율과 책임감", "타인배려"(공동체 정신), "예의범절", "정신건강", "적극성", "육체적 건강"으로 나타났으며, 일반교사들은 "정직성", "자율과 책임", "최선을 다한다", "타인배려"(공동체 의식), "적극성"을 강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성찬, 이창준, 양명환(1995). 청소년들이 지각하는 스포츠 가치성향. *체육과학연구*, 창간호, 59-70.
- 박홍규, 정홍익, 임현진(1994). 「스포츠 사회학」. 서울:나남출판사.
- 양명환(1997). 21세기를 지향하는 체육교육자의 자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주최, 제 14회 학술세미나 자료집(21세기 교육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방향), 37-44.
- 임변장(1986). 스포츠 사회화에 있어서 경기성향에 관한 연구. 미발행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Edwards, H.(1973). *Sociology of Sport*. New York: Irwin-Dorsey.
- Kleiber, D.A., & Rorberts G.C.(1981). The effects of sport experience in the development of social character: An exploratory investigation. *Journal of Sport Psychology*, 3, 114-122.
- McPherson, B. D.(1987). Sport in the educational milieu: Unanswered questions and untested assumptions. In A. Yiannakis, T. D., McIntyre, M.J., Melnick, & D.P., Hart(3rd eds.), *Sport Sociology: Contemporary Themes(pp. 132-133)*. Dubuque Iowa: Kendall/Hunt Publishing Company.
- McPherson, B.D., Curtis, J., & Loy, J.(1989). *The social significance of sport*. Champaign, IL:Human Kinetics.
- Snyder, E.E. & Spreitzer, E.(1983). *Social aspects of sport*. Englewood Cliffs, N.J.:Prentice-Hall.
- Snyder, E.E., & Spreitzer, E.(1989). *Social aspects of sport*. Third edition.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preitzer, E., & Snyder, E.E.(1975). The psychological functions of sport as perceived by the general popul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10, 35-42.
- Tutko, T. & Bruns, W.(1979). Sport don't build character-they build characters. In D.S. Eitzen(ed.), *Sport in Contemporary Society(pp. 232-237)*, New York: St. Martins.